

법회안내

불암사(0346)65-8345

초하루인등법회 매월초하루(음) 10시30분(3월22일)
지장기도 및 108 참회법회
매월 18일(음) 10시30분(3월21일)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10시30분(3월28일)



○주지 일민스님

해원정사(051)866-7771~3

자비화엄회



○주지 승원스님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연꽃부처법회 매월넷째주 일요일
오전10시
아미타화합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창년화합회 매주 화요일 오후7시30분
중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무진법장사(02)932-2333

인요한공법회



○주지 법장스님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아미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창년화합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지역망향법회 매주 목·금요일 오후2시
거사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법륜회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2시
초삼일법회 매월 1~3일 오전10시
인동광명기도 매월15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장삼일기도 매월18일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장삼일기도 매월24일 오전10시30분

청계사포교원(0343)95-6311

산중기도 매월 초하루(음) 오전10시
보살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가유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아미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북이원(042)625-1080

인요한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아미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창년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2시~9시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팔순의 최은순 할머니가 평생동안 광주리 행상과 수바느질로 모은 돈 1억원을 대학 장학금으로 쾌척(快擲)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고계에서는 박상은씨가 20년 재조사 생활로 젊음을 보내고 8년 동안 모은 1천만원을 복합동포돕기 기금으로 기탁했다. 불자들은 왜 물질과 마음으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해야 하는지 경전의 말씀을 듣는다. (편집자 주)

○...보시가 보살의 정토다. 보살이 성불할 때 온갖 것을 능히 배운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 (유마경)
○...불자여, 보살은 큰 시주(施主)가 되어 온갖 가진 것을 다 보시하되, 그 마음은 평등해 누워치거나 인색함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명성을 구하지 않으며,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그는 온갖 온갖 중생을 구호하고 온갖 중생을 이롭게 하기만을 위할 뿐이다. (화엄경)
○...보시하는 힘을 수행해 완성하면 이 보시하는 힘으로 인하여 성불할 수 있게 된다. (광명경)
○...보살은 세상의 뛰어난 물건에 대해 탐심을 내지 않아서 늘 모든 중생에게 이를 보시한다. 왜냐하면 대비(大悲)의 마음으로 중생들 하나하나를 외아들인양 평

이렇게 들었다

등히 보아서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길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유마경)
○...수보리아, 보살은 응당 이와같이 보시하여 상(相)에 집착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상에 집착함이 없으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게 큰 까닭이다. (반야경)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몸과 국토와 처자를 버려서 보시의 수행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드린다. (부지합경)
○...제어하기 힘든 어려운 인색한 마음

보시의 힘으로...

을 제어하여 재물을 품되, 꿈과 같이 하고 뜬구름같이 해야 한다. 보시하는 집착 없는 마음을 키우는 경우 이로운 지혜가 완성된다. (화엄경)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할 때는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복전(福田)에 보시할 때는 기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친누에게 보시할 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야 한다. (우바세경)
○...온갖 중생을 관찰할건대, 보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까닭에 도로 약도에 떨어져 윤회를 받게 된다. 만약 익히 깨달

아 길이 보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쁘고 불환과(不還果; 뒷결을칠 치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지)를 얻어 이 세상에 다시 와 태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본사경)
○...인색과 탐욕에 집착하면 사람들과 신분의 천하 여기는 바가 안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있는 사람은 응당 보시해야 하는 것이다. (노지정지인연경)
○...다섯 가지의 보시가 있다. 첫째는 때에 맞추어 보시함이다. 둘째는 행인에게 보시함이다. 셋째는 병자와 간호하는 사람에게 보시함이다. 넷째는 법기(法器; 불법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시함이다. 다섯째는 다른 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시함이다. (비아비문경)

신행수첩

활안스님 초청 생활법문

불법을 공부하고 생활속에서 정진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11일 활안스님(천자암 조실)을 친견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천안 천불암(주지 인경)이 '생활속에 실천해야 할 불교윤리'를 주제로 활안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천불암은 전국의 덕높으신 스님만을 초빙하여 법당 그윽한 말씀의 자리를 3년째 마련하고 있다. 이날 활안스님은 중생구제의 크나큰 원력으로 '나'를 비워야 바로보고 쓸쓸하는 지혜를 얻는다는 내용으로 설법을 한다. (0417)557-3223

육조단경 강좌·108참회

향긋한 불꽃이 흐드러지게 핀 충북 괴산으로 스님, 도반과 함께 떠나는 유행길.

불교문화센터 교리강좌반은 1박2일 과정으로 오는 17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수련대회를 간다. 혜거스님(금강산인 원장)과 (육조단경)을 공부하는 법우들 그리고 일반인도 참가하는 수련대회에서는 108참회와 참선, (육조단경) 강의, 발우공양 등을 한다. 참가자는 17일 오후1시 불교방송 앞에서 출발하며 동참금은 5만원이다. (02)703-0108



○침불암 일광삼존불. 세기 중엽의 마애불로 석굴암에 견줄만하다.

정도회 제8차 신의대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이 땅에 불국토를 이루자." 교도소, 병원, 양로원 등에 9년간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해온 정도회(회

주 범륜스님)가 12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제8차 신의대회를 개최한다.

서암, 범륜스님, 각해보살 등의 법문과 생활속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일반불자들의 신행사례담을 듣는다. 108배, 좌선염불정공 등의 순서로 철야 용맹정진을 하다보면 스스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 보며 이 땅의 정토 발원을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야 용맹정진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581-4077

19일 신라역사 탐방

보름달이 휘영청 뜬 밤에 인자하게 부처님의 미소를 느끼며 밤을 지새워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19일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달빛속에 은은히 풍겨오는 부처님의 미소를 만날 수 있는 '제4회 달빛과 함께하는 신라역사탐방'을 떠난다. 침불암-신선암-천룡사로 이어지는 답사코스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불국토를 이루려는 신라인들의 진솔한 마음이 깊이 배어있다. (0561)771-1950

해인사 일요가족법회

법보총장 해인사(주지 보광)는 매일 셋째주 일요일에 해인사 신도 정기 주말가족법회를 개설하고 있다. 감로의 법문은 마음이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과 도건 일타 지관 보광스님 등이 나서,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진행된다.

화엄사 진신사리 친견

능인선원(주지 지광)은 28일 화엄사(주지 종열) 참배 및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갖는다. 또 돌아오는 길에는 지리산 노고단에 들려 불기운이 만연한 철쭉제를 참관, 봄내음을 한껏 즐긴다. 이번엔 친견하게될 부처님 진신사리는 각황전 앞 7층석탑에서 출토됐다. 출발시간 5시30분. (02)577-5800

경주일대 삼국유사 현장을 찾아서

천리안 답사모임 20일 출발...신청자 접수

한국 고대불교문화사의 진수라 일컫어지는 <삼국유사>.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들이 살아숨쉬고 있는 현장을 찾아 떠나는 답사가 있다.

천리안 삼국유사답사모임(대표 이형기, ID=INNDORY)은 '삼국유사의 자취가 서린 유적을 찾아'란 주제로 20일 경주 안강일대 답사를 떠난다. 안강지구에는 일반적인 신라석탑과 달리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혜사지 13층석탑(국보 40호)을 비롯 나원리 5층석탑(국보 39호) 옥산서원 독립당 등의 많은 유물 유적이 있다. 답사코스는 옥산서원-독립당-정혜사터 13층 석탑-나원리 5층 석탑-금장대 암각화. 출발은 20일(일) 오전10시, 참가회費자는 PC통신 천리안 '삼국유사 소모임게시판'에 신청하면 된다.

나의 수행일기



러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히 시기, 질투심이 마음속에서 사라져 갔고, 술 담배도 끊게 되었다. 직장생활 이외의 시간은 무조건 경전을 붙들고 늘어놓는 것이 아내가 불안한지 걱정의 소리도 했다. 술주정과 악담만 내뿜던 남편이 방향을 180도 급선회하니 혹시 저러다 돌아버리는가 하고 조심스런 얼굴로 나를 대했다. 그러나 마음과 육신이 편안해지는데 어찌 경전읽기를 멈출 수 있겠는가.

내가 변하니 이웃도 변하고

다른 동료가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되었다. 이번에도 서울로 가게된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진터라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동료에게 "박기자! 당신같은 유능한 인물이 떠난다니 서운하..." 웃음을 지어가며 말을 건넸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기에 손 내밀어 내게 악수를 청할 줄 알았는데 반응은 의외였다. "내가 잘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슈?"

김생호

매일 경전 50쪽 읽기로 삼독 씌어

진정 내가 습득이 흐른 삼독심의 출세를 알게 되는 순간, 부처님의 가피력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얼마전에 또 다른 직장 동료가 타회사로 옮기게 되었다. "송기자! 이번에 새로 창간되는 주간지도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지? 축하해!"

김생호



그런데 어느날 신장(神將)에게 목졸을 밟혀 몇 년을 살려나가는 물음을 받아 3백년에서 단 3일까지 생명이 내려가는 꿈을 꾸다 잠에서 깨었다. 그 후 처음으로 불교경전을 접하게 되었는데, 뭐가 뭔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한책방을 뒤져 <한글대장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방대하여 포기하려는 생각을 여러번 했다. 그러나 꿈속에서 신장님과 매일 50페이지씩 경전을 읽겠다는 약속을 철쭉같이 하였던 터라 힘사리 포기할 수 없어 매일매일 열심히 읽어나갔다. 그랬더니 탐진치 삼독이 점점 풀

김생호

3월29일자(제308호) 대한불교신문에 게재된 불교부산방송에 관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교부산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 1.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개국한 불교부산방송에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는 불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경남지역 400만 불자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불교부산방송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대속에 범어서, 통도사, 삼광사를 비롯한 사부대중의 삼보정체가 모여 이루어진 말그대로 부산,경남지역 불자들 모두가 주인인 소중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불교부산방송의 운영위원과 임직원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산,경남 지역 불교를 활성화 시키는 방송, 그리고 올바른 불교를 생활화 시키기 위한 좋은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 그러나 지난 3월29일자 대한불교신문사에서 불교방송 경리시간을 다른 어이없는 기사는 불교부산방송 애청자에게 당혹감을 주었으리라 믿어, 아울러 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과 임직원 모두에게 이루어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애청자 여러분께서 가졌을지도 모르는 의혹을 풀어 드리기 위해 3월29일자 대한불교신문의 불교방송 관련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나마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을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3월29일자 대한불교신문은 1면과 3면, 그리고 사실면에서 불교부산방송 개국시 성금 모금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불교부산방송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5.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초 서울 불교방송에서 발생한 경리사건은 그사건의 핵심 인물인 경리부처장이 베트남으로 도피한 관계로 아직까지 정확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서울 불교방송 노조에서는 나름대로의 조사를 통해 지난 20일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개요"란 보고서를 냈는데, 이보고서 중 불교부산방송에서 개국당시 19억8천5백만원의 모금으로 송금 했으나 서울 통장에서는 24억여원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당시 서울 불교방송의 경리체계가 허술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불교신문은 그 부분을 인용 기사화하면서 상기 보고서를 제대로 읽었는지 의아스럽게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여 마치 불교부산방송도 공금횡령이 있었다는 기사로 의혹을 제기하여 부산에서 공금유용이 밝혀 진것 같이 기사와 사실을 게재 했을뿐 아니라 그 제목마저 기사의 내용과 맞지 않는 자극적인 문구로 일관하여, 불교부산방송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6. 따라서 불교부산방송에서는 대한불교신문에 빠른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며, 불교방송노조에서도 자체 보고서를 원뿔과 전혀 다르게 보도한 대한불교신문에 유감을 나타내고 즉각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7. 그러나 대한불교신문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으므로 담당 한 마음을 여누를 길 없으며, 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과 임직원 일동은 실추된 불교부산방송의 명예를 되살리고 진실이 제대로 통용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면을 통해서라도 전후 사정을 밝혀야 불교부산방송의 주인인 애청자 여러분에 대한 도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 다시한번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들의 가슴아픈 심정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된 현재의 슬픈 사정을 불제자로서 참회하며 모두다 사뻐 마음을 버리고 정법의 길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루쓰가모니불, 나루쓰가모니불, 나루시아분사 석가모니불
불기2541년 3월 31일

재단법인 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임직원 일동 합장

Document with text and a stamp, likely a formal statement or agreement.